

표본조사의 실제과정*

— 자료수집을 중심으로 —

Data Collection in the Sample Survey Practice
by Lee Sang-chul

이 상 철**

目	次
I. 머리말	6. 응답자, 면접원, 설문사이의 상호작용
II. 사전준비 단계	IV. 사후정리 단계
1. 조사주제	1. 현지작업조직과 감독
2. 조사문제	2. 기록과 보고서
3. 연구형태	3. 편집과 부호화
III. 본조사 단계	4. 감사의 글
1. 조사지역	V. 맺음말
2. 조사시점	부록 I : 조사일지 및 면접원보고서
3. 응답자	모형
4. 면접원	부록 II : 조사표
5. 설 문	

I. 머 리 말

이 글은 사회조사의 실제과정을 경험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1984년 10월에 실시한 '국민생활과 대외관계에 대한 의식 조사연구'를 사례로 하

* 이 글은 '면접 표본조사의 실제과정'이란 제목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7권 제 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10)에 연구노우트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 과정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유철인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임강사

여 그 표본조사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과정을 연구주제로 택한 이유는 한국의 사회학계에서 사회조사 과정을 분석한 글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행하여진 기존의 조사연구들은 대개 조사결과¹⁾의 분석만 제시하고 그 과정은 원론적 수준에서 간략히 진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점에 대해서만 글의 일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였다.²⁾ 그 이유는 첫째, 조사과정에 있어서의 특이성이 조사결과 및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조사과정에서는 문제를 느끼지만 조사 후에는 검토를 하여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유는 ① 조사지역에서 겪은 문제점은 자신이 조사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탓이라고 간주하거나, ② 조사지에서 돌아오면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잊어버리고자 하거나, ③ 자신을 스스로 유능한 조사자로 이미지화하기 때문이다.²⁾ 그러나 조사결과의 분석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자료수집과정에 이상이 있어 자료의 타당성이 의문시된다면 그 연구는 문제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자료분석에 못지 않게 자료수집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경향을 보완하고자 자료수집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면접 표본조사의 전과정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사연구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론들은 서구, 특히 미국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점이 무시되는 수가 많았다. 사실 일반 사회학이론의 수립에 있어서는 한국의 특수성이 강조되면서도, 조사방법에 있어서의 특수성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온 실정이다. 그러므로 조사방법의 이론형성에 주목함으로써 연구방법의 토착화를 생각해 보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조사연구의 실제과정을 정리·분석함으로써, 연구자·연구조교·면접원들이 조사연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부딪치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강의의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숙달되지 않은 조사자들의 연구과정에 이용될 수 있으며, 사회조사방법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면접원들의 지침서로 사용될 수도 있다. 요컨대 앞으로 조사연구의 길잡이 노릇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논의의 전개는 본조사 단계를 중심으로 하여 사전준비 단계 및 사후정리 단계 셋으로 나누어 주

1) 현지조사의 경험을 예외적으로 분석한 것은 인류학자인 유철인의 "현지조사에서의 연구자와 면접원과 농민," 「한국문화인류학」 제 12집, 1980.12, 한국문화인류학회가 있다. 이 글은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 특히 연구자·면접원·농민들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Morris Freilich, "Field Work: An Introduction," M. Freilich ed., *Marginal Natives at Work: Anthropologists in the Field*, Cambridge: Schenkman Publishing Co., 1977, p. 28.

제별로 하고자 한다. 여러 주제 중 특히 응답자, 면접원, 설문,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된 관심을 두고자 한다.

Ⅱ. 사전준비 단계

이 장에서는 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의 단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표본추출에 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조사주제

국민생활과 대외관계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주제는 연구후원기관인 동아일보사의 ‘대외관계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을 연구해 달라는 요청에, 연구소에서 기왕에 해오던 ‘국민생활’에 관한 관심을 결부시킨 것이다.

2. 조사문제

대외관계에 관한 조사문제는 동아일보사의 협력기관인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사’에서 이미 세계적인 규모로 실시해 오던 것이다. 아사히신문사에서 이것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안해 온 것을 연구소에서 재검토하여 보완하였다. 그 후 삼자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 제 1부 25문항이다. 제 2부 24문항은 연구소에서 추가한 것이다.³⁾

3. 연구형태

조사연구형태는 표본조사를, 자료수집방법은 조사표에 의한 면접방식을 취하였다. 표집은 다단계 층화집락 무작위(多段階 層化集落 無作為)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지역을 선정하였다. 표본지역으로 선정된 동·리에서 20세 이상의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계통적 또는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였다.⁴⁾

3) 이번 조사연구는 그 자체의 예비조사와 사전검사를 하지 않았다. 시일이 촉박한 이유도 있었지만, 제 1부는 아사히신문사에서, 제 2부는 연구소에서 이미 조사를 계속 해오던 내용들을 조금 수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4) 자세한 내용은 김경동 외, “국민생활과 대외관계에 대한 의식 조사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제 7권 제 2호, pp. 126-27을 참조할 것.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의 협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얻었다.

가) 협조전

도시에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농촌에서는 해당 동·리외에 상급기관인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도 협조전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서도 조사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협조전은, 우송하는 것 외에도 지역조사책임자가 직접 한 통씩 휴대하고 해당 동·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업무의 번잡으로 인하여 협조전을 직접 읽어 보지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지역조사책임자는 조사본부에 가서 다시 협조전을 가져와야 하는 불편과 비능률이 야기되었다.

협조전에 조사기일은 포괄적으로 나타내되 현지도착일시는 정확히 지적해 두는 것이, 해당 동·리에서 준비·대기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나) 동·리장의 역할

도시에서는 대체로 주민등록부를 열람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도움을 직접 얻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동·리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는 20대와 30대 주민의 인구구성비가 아주 낮다. 특히 단독유출을 많이 하는 20대의 경우는 거주지 이전 신고를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가 부채 중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⁵⁾ 그래서 표본으로 추출된 20대를 면접하려고 시도하다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분으로 추출한 표본마저 부족하여 표본추출을 다시 해야 하는 비능률도 초래되었다. 이때 동·리장의 도움이 중요한 것이다. 이들은 주민 개개인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므로 장기부채 중인 자를 아예 모집단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표본추출 과정에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어떤 지역에서는 동·리장이 조사대상자의 거주위치·임시출타 등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면접순위까지 지정해 줌으로써 능률을 크게 신장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농촌에서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동·리장을 찾아본 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⁶⁾

5) 현재 농촌에서 30대는 가구유출, 20대는 단독유출의 비율이 높다. 그리하여 30대는 주민등록부 상에 등재되지 않게 되고, 20대는 주민등록부 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거주지는 도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표본에서 30대의 비율은 낮아지며, 20대는 표본으로 선정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부채 중이어서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다. 단독유출은 주로 취학·군복무·취업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이전신고를 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농가인구유출에 관해서는 倉持和雄, "韓國に於ける農村・農家人口の流出," 「アジア經濟」XIV-5, 1983.5를, 주민등록부와 실제 인구이동 상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Lee On-jook, *Urban-to-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0을 각각 참조할 것.

6) 면접원 훈련도 사전준비 단계에 해당되지만 III장 4절 나) 항에서 자세히 취급하고자 한다.

Ⅲ. 본조사 단계

이 장에서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현지본조사 과정 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여섯 주제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 조사지역

가) 도시·농촌

(1) 도시: 동장의 도움을 얻기가 힘들다. 조사대상자가 현재 거주 중이라도 직장에서의 출퇴근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면접원들이 출퇴근 하기에는 편리하므로 비교적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일상생활의 리듬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2) 농촌: 동·리장의 도움을 얻기가 용이하다. 또 조사대상자를 만나기도 비교적 용이하였다. 그렇지만 면단위에서 현지조사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조사지역에의 출퇴근이 어렵고, 면접원들이 일과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며, 서울에 있는 조사본부와의 연락도 힘들었다.

특기할 것은 강원도 정선의 광산지역의 경우이다. 통상 광산촌은 읍이나 면소재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불편하였다. 조사대상자가 광부들인 경우에는 근무시간관계 때문에 직접 만나기도 힘들었다. 또한 '사복사태' 때 소요가 상당히 심했던 곳에서는 정보원에 대한 피해의식이 커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나) 계층별 거주지역

(1) 아파트 지역: 조사대상자의 생활수준이 중간층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을 아예 열 어주지 않아서 조사대상자를 대면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때가 많았다. 그 까닭은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강도사건 때문에 낮선 자를 경계하는 것 외에도, 조사대상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인 듯 하였다. 그래서 경계심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가 많은 서울지역의 면접원은 전원 여학생으로 하였다.

주민등록부 상에서 조사대상자의 가족사항·이름·성별·연령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숙지한 것은 면접기회를 얻는 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리하여 일단 집안에 들어가는 데 성공을 하면 차 정도는 대접을 받는다. 또 응답자의 설문 이해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면접과정 자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근인아파트 지역에서는 대학생이 조사를 한다는 사실 자체에 큰 반감을 나타내었다.⁷⁾

(2) 산동네 : 주로 도시빈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번지수와 호수의 배정이 비체계적이어서 조사대상자의 집을 찾기가 아주 어려웠다. 그렇지만 인심은 좋아서 집을 찾는 데 안내를 많이 받기도 하였다. 대개 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므로 일단 집을 찾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응답자들도 진실하게 대답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아파트 지역과는 달리, 조사대상자들이 휴일에도 근무할 때가 많아서 만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3) 농 촌 : 집을 찾는 것과 협조를 얻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그렇지만 20대 조사대상자들의 장기부채와 농번기가 조사에 곤란한 점으로 나타났다.

2. 조사시점

가) 계 절

도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농촌에서는 문제로 드러났다. 같은 농촌이더라도 비농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읍에서는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농업부문 종사자가 대부분인 면에서는 농번기와 겹침으로써 능률이 크게 저하되었던 것이다.

농촌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대다수가 부채 중이어서 낮에는 아예 조사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 때로는 작업현장에서 면접을 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뒤따라 다니면서 면접을 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서로의 일이 비능률적이었으며 응답의 적합성도 의심스러웠다. 또 바쁜 응답자들에 대해 면접원이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면의 경우, 읍의 현지조사본부(주로 여관)에서 왕래하는 것은 교통이 불편하며 새벽이나 밤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 조사지역에서 민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때에도 농번기에 숙식을 제공하고 제공받는다는 것이 피차 부담이 되었다. 또한 면접원들의 잠자리도 불편하며 행동도 조심해야 되었기 때문에, 조사기간 중 휴식이 충분히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수면부족상태까지 초래되어 의욕이 저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작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응답자들이 감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조사시기는 될 수 있는 한 농번기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시 기

대외관계에 대한 설문은 일본관계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마침 대통령이 방일한 직후여서 응답자

7) 대학생의 면접원으로서의 적합성 문제는 Ⅲ장 4절 가) 항을 참조할 것.

들의 평소 태도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였던 것 같다. 갑자기 일본에 대한 많은 정보가 쏟아져 제대로 판단할 겨를도 없이 주입되기 시작하는 시기였으므로, 표본조사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동태성의 결여—한 시점에서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실체의 고정된 한 단면만을 나타내게 되는 정태성—란 점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때였다.⁸⁾ 사실 많은 응답자가,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통령도 갔다오고 했으니……” 하면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방일 전과 방일 후 두번에 걸쳐서 조사를 하였더라면 태도변화를 연구하기가 아주 좋았을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가능한대로 방일 분위기가 가라앉은 후 조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안동의 어느 아파트 지역에서는 “얼마 전 모 회사에서 이와 비슷한 시장조사를 나왔었는데 또 당신들이 찾아왔느냐”며 귀찮은 듯이 면접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 상황에 관한 예비조사를 했더라면 그곳을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다) 평일·주말

도시에서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조사대상자를 평일에 면접하기는 곤란하였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미리 시간약속을 한 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면접하였다. 평일에는 주부나, 집에 딸린 장소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면접하였다. 농촌에서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않았다.

라) 새벽·낮·밤

도시빈민이나 농번기 농민은 생업관계로 낮에 만나기가 어려워 아침 일찍 또는 밤늦게 면접을 할 때가 많았다. 이때는 응답자들의 심신이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면접도 쉽지 않으려니와 성실한 대답을 기대하기도 힘들었다. 또 짧은 이 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려니까 면접원들의 식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폐단이 있었다.

3. 응답자

가) 경제심

낮선 면접원이 접근하면 조사대상자는 일단 경제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 아파트 지역에서는 경제심이 다른 곳보다 더욱 높았다. 농촌에서는 동·리장의 협조를 얻어, 마을마다 거의 구비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사전 홍보방송을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었다.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Ⅲ장 5절 대항과 6절 나)항을 참조할 것.

정태성의 문제는 Nan Lin, *Foundations of Social Research*, 김종덕·김학범 역, 「사회조사의 기초」, 박영사, 1984, pp.282-83, 288-89 참조.

동·리장의 ‘점열’을 마쳤다는 사실이 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경계심과 두려움을 감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품질보증서’와 같은 권위까지도 갖는 것 같았다.

조사대상자는 자신이 왜,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궁금해 한다. 면접원은 이점을 충분히 납득시켜야만 면접이 쉽게 시작되고, 응답내용도 충실해질 수 있다.

나) 정 보

도시에서는 주민등록부 상에서 조사대상자의 가족사항·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농촌에서는 동·리장과 함께 표본추출을 하면서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면 면접원이 어떠한 면접기술을 사용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조사대상자의 경계심을 줄이고 ‘친숙한 관계’(rapport)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대상자 자신을 찾아서 면접원이 멀리서 일부러 왔다는 사실 인식 때문에, 대상자로서는 면접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듯 하였다. 더우기 자신을 찾아온 ‘손님’은 접대되어야 마땅하다는 인식 때문에 성의있는 응답을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사정을 알고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과시하면, 오히려 의심을 사고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배경

(1) 성별: 일반적으로 여성을 면접하는 것이 남성의 경우보다 어려웠다. 하층일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했다. 그 이유는 외간남자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실에 대한 거부감과, 정치·경제적 사항에 대한 인식결여 때문인 듯하다. 그러므로 면접시에는 이러한 부담감을 빨리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연령: 연령 그 자체에 의한 차이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설문 이해도도 낮아져서 면접이 힘들어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3) 학력: 학력이 높을수록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면접하기는 쉬웠다. 그러나 ‘자기방어’ 때문에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여론·언론기관의 보도내용·정부공식견해를 좇아서 대답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 같기도 하였다.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설문 이해도가 낮았으며, 이처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몹시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았다(설문내용이 어렵게 된 점이 면접원으로서의 몹시 미안하였다). 그래서 중도에 면접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많아 몹시 힘이 들었다. 이들 중 일부는,

“저는 무식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거나 또는 “저대신 더 똑똑한 사람을 가르쳐 줄 터이니 그 사람을 찾아가 면접하십시오” 라고 강요하였다.

(4) 직업 : 공직자들은 응답을 했다가 곧 수정하는 등 솔직하게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다. 이러한 경향은 군인들의 경우에 극단적이었다. 이들은 아예 자신들의 “말 한마디 한 마디가 모두 국가기밀이므로 응답을 할 수 없다” 고 거절하였다. 농민들은 일단 비교적 쉽게 응해주었다.

(5) 계층 : 도시거주 중상층은 경계심이 아주 높았으며 솔직하게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꽤 되는 것 같았다. 중간층은 비교적 무난히 응답해 주었다. 이에 비해 하층은 진실하게 응답하려는 것 같았으나, 이해도가 낮아서 면접진행에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하층의 경우에는 응답을 했다가 피해가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해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이때에도 면접원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⁹⁾

(1)~(5)에서처럼 사회조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응답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면접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많이 알거나 적게 알거나 간에 지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전 국민의 의견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적게 받은 사람, 남성·여성, 나이가 많은 사람·적은 사람, 잘사는 사람·못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농촌에 사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히려 선생님같은 분들의 의견이 더욱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평소 생활과 의견을 묻는 것이니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쉽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응대해주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한 것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예비뽑기(표본추출)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몹시 힘이 듭니다. 이제 몇 문항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지요.”

9) 이 문제는 연구자·면접원 등 조사에 참여하는 누구나가 마주하는 것이자 느끼는 심정이다. 연구자·면접원의 주된 관심은 연구과정과 조사의 능률인데 비해서, 응답자의 주된 관심은 일상생활에서의 이익과 이를 위해 자신들의 견해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처럼 정책결정을 위한 조사가 아닐 경우 연구결과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연구자·면접원으로서, 위와 같이 응답자들과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이로부터 일방적으로 정보를 얻어내기는 하지만 그들을 도울 수는 없다는 비호혜성(non-reciprocity) 때문에 심리적·윤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실망하거나 응답이 부실해질까 두려워, 그들의 견해가 직접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솔직하게 대답하기도 곤란하였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므로, 한계가 있더라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해를 얻을 수 밖에 도리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 그들의 견해가 간접적으로는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고무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과학이 갖는 윤리성의 문제는 응답자를 직접 대하는 면접조사에서 아주 강하게 피부로 느끼게 된다. 유철인, 앞의 글, pp.135 - 36 참조.

요컨대 면접을 진지하게 행하며 응답자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⁰⁾

라) 응답환경

배우자·시부모·자식·이웃 등 제 3자가 응답자 주위에 있을 때는 이들이 면접진행과 응답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응답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나이의 고하를 불문하고 소신껏 응답할 수 있으나, 응답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남편이 면접을 받을 때는 부인이 간섭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간섭을 하더라도 남편이 자신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부인의 경우에는 주위에 남편이 있으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보통 낮에는 남편들이 부재 중이었는데, 간혹 집에 있는 경우에는 환자일 때가 많았다. 그래서 이들은 신경이 더욱 곤두서서 적극간섭을 하거나, 부인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었다. 이 경우 남편에게 담배 등을 권하면서, 면접은 어디까지나 응답자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응답자와의 면접이 끝난 후 본인과 다시 대화를 하자고 제시하던가 하였다.

또 자신은 면접을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이 면접을 받으면 간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에는 그 사람에게 면접을 다시 시작하자고 해서 조용히 있게 하거나, 혹은 진행 중인 면접이 끝난 후 본인과 다시 면접하자고 설득하기도 하였다.

주위에서 보채는 어린아이가 있어도 응답자의 주위가 산만해져 지장이 초래된다. 그럴 때는 어린아이에게 적당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잘 타일러 밖에 나가서 놀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민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듯 미리 응답을 하며 어머니에게 의견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취한 후 면접을 진행시켜야 했다.

4. 면접원

가) 선 발

(1) 대학생·중년여성 : 연구소가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통상처럼 대학생을 면접원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이 과연 훌륭한 면접원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대학생을 면접원으로 활용할 경우의 장점은 ① 훈련을 시키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② 모집이 쉬우며, ③ 지방 출장에 편리하고, ④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여러가지 편의와 협조를 제공받는 데 유리하며, ⑤

10) 면접원 자신이 유식하다는 티를 내거나 응답자 스스로 무식하다는 기분이 들지 않게 해야 될 것이다. 설사 그런 응답자들을 대하더라도, 응답자 자신의 삶·생각·느낌은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며, 면접원도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 응답자에게서 많은 점을 배우고 있다고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일환으로서 실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단점은 ① 대인접촉이 아직 미숙하고, ②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조사대상자들로부터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③ 요즘 많이 거론되는 학생운동 때문에 “데모만 하는 학생들이……”라는 반감을 초래하여 거절을 당하거나 응답을 순조롭게 이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중년여성이 비교적 무난한 것 같다.¹¹⁾ 유희 고급여성인력은 이미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의 장단점은 대학생의 경우와 대체로 역의 관계일 것이다. 그리고 새벽·밤 시간의 활용이 곤란하므로 시일이 촉박한 조사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2) 외모·성격: 조사대상자와 처음 대면했을 때 면접원이 주는 인상은 응답을 성공적으로 유도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외모가 일본인과 비슷한 어느 면접원은 조사대상자로부터 계속 추궁을 당한 적도 있다. 아마 재일교포출신 대학생 중 일부가 간첩으로 활동하였다는 언론기관의 보도가 연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면접 자체도 하나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므로 면접원의 성격도 중요하다. 예컨대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사교적이어서도 안되며, 너무 점잖거나 수줍어서도 곤란하다. 꽤 활하면서 동시에 사무적인 태도가 요구된다.¹²⁾ 그러나 학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이 점을 선발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중년여성의 선발기준으로는 충분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출신지: 면접원의 출신지가 조사지역과 같을 경우 능률은 아주 높아진다. 왜냐하면 ① 첫 대면시 경계심과 거부감을 줄이면서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쉬워지고, ② 지역사정에 익숙하여 다른 면접원들의 안내역할도 할 수 있으며, ③ 학력이 낮은 응답자에게도 지역사정을 예로 들면서 어려운 문항도 비교적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물론 다른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지만 장성 지역에서는 이곳 출신 면접원이 다른 면접원보다 거의 두 배의 면접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비록 동향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방언을 구사할 수 있는 것도 효과적이었다. 반대로 면접원의 방언이 대상지역 방언과 상이할 때는 거부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표준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면접원을 배치할 때는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훈 련

(1) 사전준비 단계에서의 참여: 부가적인 현장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예비조사와 사전점사부터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시일이 촉박하여,

11) 김경동 외, 「사회과학방법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3, p.102.

12) Nan Lin, 앞의 책, pp.271 - 72 참조.

13) 이 점에 관해서는 III장 6절 가) 항을 참조할 것.

현지본조사 실시 며칠 전 연구소에서 조사표와 면접요령을 중심으로 4시간 동안만 훈련을 행하였다. 그 결과 면접원이 면접상황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2) 설문내용 : 사전준비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번 조사와 같이 단시간의 교육만 받았을 때는 연구자의 의도나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음이 드러났다. 1차 교육 후 다른 면접원 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한두 번 면접하여 설문내용과 면접상황에 익숙해진 후 다시 교육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만 문항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될 것이다.¹⁴⁾

(3) 지역상황에 대한 사전지식 :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면접원들을 대상지역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응답자가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사회적 환경에 대해 이해·교육을 시킴이 필요하다. 사실 이방인인 면접원이 그들의 생활사정 및 지역사정을 알고 있으면 신기해 하면서 반가이 맞아주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농촌에서는 농촌현실과 농업정책에 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조사에 임할 때 친숙한 관계의 형성과 면접거부를 풀어가는 데 유리하였다.

(4) 행 동 : 농촌에서는 낯선 사람은 눈에 쉽게 띄므로 면접원이 의식하지 못하는 장소나 시간에도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응답자는 면접이 시작될 때 인사말로, 면접원이 마을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을 야기하지 않도록 면접원의 조심스러운 행동·태도가 요청된다.

(5) 준비물 : 통상처럼 신분증·세면도구·의복·필기구 등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손전등도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밤에 면접을 하기 위하여 조사지역을 왕래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발을 헛딛거나 논둑으로 떨어져 다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 사례품 증여시기

면접조사시 응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통상 자그마한 물품을 증여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그러한 사례품을 마련하였다. 도시에서는 볼펜을, 농촌에서는 면접원이 휴대·운반하기에는 불편하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건을 선물했다. 그런데 이 사례품을 건네주는 시기를 정확히 포착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1) 면접시작 전 : 면접에 응하는 대가로 주는 것이라고 나타내는 것 같았다.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았으며, 때때로 면접 도중에 그만 두려는 응답자가 있을 때 곤란하였다. 왜냐하면 준비한 사례품수와 표본수를 거의 일치시켰기 때문에 사례품을 되돌려 받지 않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14) 자세한 것은 ■장 5절을 참조할 것.

2) 면접 중: 일단 면접을 시작한 후 응답자의 신경이 날카로와 지거나 지루함을 느낄 때, 또는 어려운 문항을 대했을 때 증여함으로써 응답을 끝까지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컨대 “아! 참, 드릴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다 보니 그만 깜빡 잊었군요. 약소하지만 저희들의 성의니까 받아 주시지요” 하면서 사례품을 건네면, 분위기가 일신되고 호기심도 촉발시키면서 응답을 끝까지 하도록 책임감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았다. 좀 계산적인 듯 하였지만 하층·저학력의 경우에 끝까지 응답을 구하는 데는 효과적이었다. 다만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면접 도중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증여하여야 될 것이다.

3) 면접종료 후: 면접을 쉽게 이끌어 갈 수 있을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았다. 서로 부담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는 예상하지 않던 선물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만 노출시킨 허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면접원도 면접 뒷마무리가 원만하게 된다.

5. 설 문

가) 난이도·언어

많은 응답자들이 설문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평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저학력·하층 여성의 경우에 더욱 심하였다. 그래서 끝까지 응답을 얻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모든 면접원들이 한결같이 토로하였다. 끝까지 듣더라도 그것이 과연 솔직한 의견을 나타내는 것인지 확신을 하기도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응답을 억지로 유도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과연 유의미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면접원도 있었다. 설문의 내용이나 용어가 어려웠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언어구사는 응답자들 가운데에서 수준이 가장 낮은 자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¹⁵⁾

이와 더불어 강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은 그들 특유의 의식구조와 언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농민들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무시하고 조사표와 설문을 작성한다면 타당도가 낮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을 초래하기가 쉽다.¹⁶⁾

나) 배열

문항의 내용상 그 배열이 응답자의 의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

15) 예컨대 ‘문항 32’ 1항의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이라는 식의 학술적 언어는 가급적 피하고 일상어로 설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16) 이만갑, “농촌사회조사의 문제점,” 「한국사회학」 제 6집, 1971, p. 83.

대 제1부 대외관계 문항 뒤에 제2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문항이 있다. 그 후 다시 ‘문항 32’부터 대외관계 문항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응답자는 “아니, 아까 대답한 것이 아닙니까”라며 반(半) 항의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연구후원기관의 요구와 연구소의 관심을 절합시키려다 그렇게 되었겠지만, 배열을 좀더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설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이해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들의 의식의 흐름에 면접원이 따라가야만 응답을 끝까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배열순서대로 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 과정에서 몇몇 문항은 누락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다) 표 현

정치·경제적 쟁점이나 대외관계에 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솔직히 나타내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 물밑듯한 언론기관의 정보량과 정부의 홍보에 의하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받아 들여지도록 강요된 것을 무의식적으로 추종하거나,¹⁷⁾ 의식적으로 견해를 왜곡시켜 나타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응답자들이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이렇다고들 하지요”라는 사족을 달면서 응답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표현은 타당도가 높은 응답을 유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럴 경우 간접적인 표현을 쓴 질문으로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라) “무응답” 항목

설문의 난이도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저학력·하층·여성에게 이를 수록 “모르겠다”는 대답이 많았다. 이 경우 “모르겠다”는 항목이 없으므로 “무응답”란에 기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응답”과 “모르겠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반드시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응답자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이유는 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② 응답을 생각하는 동안 공백시간을 메우기 위한 경우, ③ 응답내용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두려워 하는 경우, ④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기 싫어서 회피하는 경우, ⑤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면접원은 좀더 확인(probing)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르겠다”는 응답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각 상황에 따라서 면접원은 ① 보충설명을 하거나, ② 더 기다리거나, ③ ④ 안전보장과 비밀보장이 된다는 점을 납득시키거나, ⑤ 그대로 기록하거나 해야 한다.¹⁸⁾

17) 때로는 통념으로 받아 들여지는 견해와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견해의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응답자가 있어서 앞의 경우로만 응답하기도 하였다.

18) 경제기획원·한국보건연구원, 「전국인구이동조사요령서」, 1983, pp.23 - 25 참조.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모르겠다”는 응답의 대부분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라 주로 ⑤의 경우에 해당되는, 그 자체 하나의 중요한 태도·의견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빈곤으로부터의 탈피와 일상생활 이외의 다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응답을 기피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치·경제적 쟁점과 대외관계에 관한 문항 모두에 “모르겠다”로 일관한 자들도 있었다.¹⁹⁾ 이처럼 사회의식이 약하거나 아예 결여된 응답자의 경우에는 “모르겠다”는 응답도 하나의 명확한 태도·의견으로 간주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응답”이 너무 많아서 조사의 적합성도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문항 16’에서 “일본제품을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항목이 결여되었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는 ① 인지도 ② 정의(定義) ③ 의견·태도의 순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번 조사는 이 점에서 조금 잘못을 범한 것 같다.

마) 새로운 시도

(1) 문항 30 : 면접원들이 연구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상의 경우보다 좀더 세분화된 직업분류를 사용하였다. 예컨대 ‘문항 30-1’은 직업분류를, ‘문항 30-2’는 사업체의 규모를, ‘문항 30-3과 30-4’는 종사상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세 지표는 모두 고려하면 응답자의 객관적인 계급을 나타낼 수도 있는 진일보된 척도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도시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²⁰⁾ ‘문항 30-1’에는 25)항과 49)항 밖에 해당 항목이 없다. 연구자는 ‘문항 30-1’에서 ‘55) 기업체 최고경영자’의 항목과, ‘문항 30-2, 30-3, 30-4’를 결합시키면 도시자영업자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 점이 훈련과정에서 면접원들에게 전혀 주지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이들은 ‘기업체 최고경영자’와 자영업자를 상식적인 차원에서 전혀 동일시 할 수가 없었다.

(2) 문항 37 : 탐색적인 의도에서 개방식 질문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았다. 예컨대 “나눌 수 있다”고 응답한 자들도, 나누기가 귀찮고 어려워 “나눌 수 없다”거나 “모르겠다”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①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에 대한 인

19) 이러한 응답경향은 조사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많은 응답자들이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대답을 회피하기도 하겠지만, 사회의식에 관한 질문은 완곡하게 대답하거나 왜곡시킬 수는 있어도 대담 자체를 그렇게까지 “모르겠다”로 일관하리라고는 짐작을 못했기 때문이다. 예상과는 반대로 사생활은 하소연하듯이 털어 놓는 반면에, 사회의식에 관한 질문은 무관심과 지식의 결여로 전혀 대답을 못했던 것이다.

20) 도시자영업자의 비율은 논자마다 추계가 조금씩 상이하다. 그러나 대체로 경제활동인구의 20%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홍두승, “직업 및 계층구조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1983, p.71 ; 홍두승,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5권 제 3호, 1983.12, p.82 ; 서관모, 「현대 한국사회의 계층구성과 계층분화」, 한국사회학회, 1984, p.48 참조.

지도, ② 확정 및 구성, ③ 귀속의식 순으로 질문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3) 문항 40~49 : 저학력의 경우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갑·을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상반된 의미를 뚜렷하게 의식하지 못할 때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가 신중히 생각하도록 하며, 쟁점과 견해가 선명하게 눈에 띄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결과가 좋았던 것 같다. 참신한 시도인 바 개발의 여지가 많은 듯 하다.

바) 면접소요시간

이번 조사표는 약 30~50분이 소요되는 분량인데, 면접시간이 길고 문항이 많다고 불평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설문의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것 같았는데 끝까지 응답을 얻는 것이 힘들었다.

6. 응답자, 면접원, 설문 사이의 상호작용²¹⁾

가) 난이도와 응답자·면접원

설문의 내용이 어려워 이해되지 않을 때는 면접원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면접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 사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면접원들에게 재삼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동조를 유도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고 솔직히 이야기한 면접원도 다소 있었다.

설문의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때, 질문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그 주변을 일괄적으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때 면접원의 해석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 응답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 확인질문 (probing) 을 하면 — 추궁당하는 느낌이 드는지 또는 정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식이 부끄러운지 언급을 회피하거나 자리를 뜨려는 응답자도 많았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화를 내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감정이입’ (empathy) 의 사용 —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능력, 즉 면접원이 응답자에 의해 표현된 의견을 응답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활동 —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고령자와 저학력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숙달된 면접원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원의 특성에 따라 응답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공해산업과 경제성장의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묻는 ‘문항 41’ 을 예로 들어보자. 빈곤을 벗어나려는 욕망 때문에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며 경제성장을 택한 많은 응답자들이, 그 지역출신인 면접원이 읍내에 소

21)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훌륭한 저서로서는 D.L. Phillips, *Knowledge from What?* Rand McNally and Company, 1971이 있다.

재하고 있는 시멘트공장의 공해를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니까, “아니, 그런 곳에서는 도저히 못 살지요” 하면서 공해산업금지로 의견을 변경하였다. 이 경우 지역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면접원이 일관적인 설명만 하였더라면, 응답자는 경제성장을 택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면접상황 그 자체도 하나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객관성 유지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면접원은 면접원대로 동조를 유도할 수 있고, 응답자는 응답자대로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고 면접원의 입장에 신경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설문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아질 것은 자명하다. 물론 면접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객관성 유지를 강조하거나,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에 연구자가 ‘체계적 오차’²²⁾를 감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학력이 낮은 응답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는 것이다.

나) 연구후원기관에 대한 응답자의 추측

응답자는 때때로 연구후원기관에 대한 추측을 한다. 특히 설문이 정치·경제적 혹은 대외관계에 관한 내용이라면 더욱 그런 것 같았다. 어떤 응답자는 “그렇게 묻기만 하는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반문을 하기도 하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인가 신원증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만약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면 응답자로부터 솔직한 의견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어떤 응답자들은, 언론기관 등에서 표명하는 견해와 다르게 응답하게 되면, 마치 틀린 답을 제시하거나 반(反)정부적인 의견을 뜻하는 것으로 스스로 느껴 의사표현이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하였다.

다) 설문내용과 체계적 오차

면접원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여러 측정에 관하여 개인들 사이에 차이는 생기기 마련이다. 이것은 응답자의 속성·성격에 기인하는 참된 차이일 수도 있고 측정의 오차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상적인 것은 전자에 의한 차이 뿐이지만 후자에 의한 차이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문제가 되는 측정오차는 ‘무작위 오차’(random errors)와 ‘체계적 오차’(systematic, constant, biasing errors)로 나누어진다.²³⁾ 무작위 오차는 개인적 차원(단일표본)에서는 오차로 나타나지만, 집단적 차원(표본전체)에서는 그 평균이 0으로 되기 때문에 조사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체계적 오차는 어떤 요소가 체계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집단적 차원에서도 평균이 0으로 나타나지 않고 편기하게 된다. 그 결과 측정과 조사는 타당도와 신

22) 체계적 오차에 대해서는 다음 대항을 참조할 것.

23) Phillips, 특히 2장을 참조.

되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이번 조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외관계 등 정치적인 질문에 응답자가 진실한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제기되는 의문이었지만, 무작위 오차의 평균은 0이므로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입·학력 등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한 응답자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아 갑니까”라고 반문을 하니, “그러니까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응수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수입은 실제보다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정액소득자가 아닌 경우에 계산을 하기가 복잡한 탓도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정확한 수입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사회적 성향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소득을 묻는 항목은 좀더 세련시켜야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²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체제적 오차를 감안하여 해석시에 응답결과를 조금씩 높게 책정해야만 될 것이다.

반대로 학력의 경우에는 실제보다 조금 높게 응답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학력은 수입의 경우만큼 세련된 항목을 작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은 응답결과를 조금씩 낮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사후정리 단계

이 장에서는 현지작업 감독과 자료정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현지작업조직과 감독

조사대상지역에 도착하면 우선 현지조사본부를 설치하고 경찰서, 읍·동사무소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외에는 여관이 현지조사본부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서울의 조사본부

24) 수입 자체가 조사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 때는, 간단하게 “한 달 평균수입이 얼마나 됩니까”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아주 큰 무리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의 측정이 큰 중요성을 가지는 연구에서는 항목을 세련시켜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수입을 획득하는 방식은 직업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사기법도 이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소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농민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수입을 계산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조사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의 계산방식을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왔다. 그럴 때 농민들은 계산에 혼란을 느껴 정확히 응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① 일단 농민들의 계산방식과 계산과정에 따라서 수입을 조사한 후, ② 이것을 연구자의 분석적인 틀로 재구성하는 2단계 작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뜻에서 농민들의 독특한 수입 계산방식만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조사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외 정액소득자의 경우에도 소위 ‘비공식 수입’을 알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와도 항상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조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사항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면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연락이 쉽게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대상지역에 도착한 후에도 면접실시에 관한 교육을 간단히 반복하였다. 업무할당도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 조사의 진척상황·면접원의 특성과 능력·조사대상지의 성격 등에 따라 조정을 하였다. 이것은 조사속도도 빨리하며 면접원의 피로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2. 기록과 보고서

하루의 면접이 끝난 후에는 전 면접원과 지역조사책임자가 모여 그날의 조사진행상황·면접시의 문제점·조사표의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토의를 하였다. 이때 각자 개인적인 논평을 하면서 상호학 습효과도 거두었으며 조사단의 일체감과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논의만으로 끝나게 되면 결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면접원들이 관찰자나 심층면접원으로서 느낀 점이 조사결과의 분석에 고려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다. 사실 미묘한 정치적 문제 같은 것을 조사할 때에는 구체적인 조사결과와 면접원들이 느낀 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가 남지 않게 되면 후의 다른 연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의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① 지역조사책임자와 전 면접원은 매일 면접이 끝난 후에 그날의 면접상황을 토의하고, 지역조사책임자가 ‘조사일지’를 작성한다. ② 면접이 완전히 끝난 때에는 면접원 각자가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역조사책임자는 이것을 정리·종합하여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한다.²⁵⁾ 이 과정에서 면접원들은 조사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교육효과도 상당히 얻을 것이다. 또 조사자는, 면접원을 관찰자나 더 나아가 심층면접원으로 이중삼중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 방법이 갖는 피상적인 의식조사의 한계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 편집과 부호화

하루의 면접이 끝난 후에 현지조사본부에서 지역조사책임자의 지도 아래 면접원 각자 자기가 조사한 사례에 대한 편집과 부호화를 완료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면접시 생겼던 문제나 빠뜨린 것을 보완하여 면접의 질을 보장할 수 있었다. 또 편집과 부호화를 별도로 함으로써 생기는 오차를 줄이고 비용절약 효과도 거두었다.

25) 조사일지와 보고서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정형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려면 아무래도 양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록의 조사일지 및 면접원보고서 모형을 참조할 것.

4. 감사의 글

현지작업이 완료되고 서울의 조사본부에서 본조사 결과가 정리된 후에 곧 표본지역으로 선정되었던 동·리장 또는 조사협조자 앞으로 조사협조에 대한 감사의 글을 발송하였다. 이 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간과한 것인 바 앞으로 관계화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① 연구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후, 조사에 협조한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② 사회조사 연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앞으로 다른 연구자가 그 지역에서 조사연구를 실시할 때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조사과정 및 조사방법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던 경향을 보완하고자, ‘국민생활과 대외관계에 대한 의식 조사연구’를 사례로 하여 그 조사과정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사회조사 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사연구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자 함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조사연구의 전과정을 포괄함으로써 그 과정을 개략적으로 분석하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지적한 점 하나하나가 모두 앞으로 우리들이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수입산출방식의 개선’은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부분·주제에 대한 깊이있는 본격적인 연구가 축적이 되고 나아가 표본조사와 다른 연구방법의 과정도 분석되어야만, 사회조사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의 발전과 토착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이번 조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한 것도 결코 표본조사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표본조사가 갖는 문제점을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검토함으로써 그것들을 개선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조사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예비조사와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고 면접원들의 훈련을 강화하여 질을 높였더라면, 앞에서 논의한 대부분의 문제점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으리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조사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부록 I : 조사일지 및 면접원보고서 모형 *

< 조 사 일 지 >

<p>I. 1. 조사단: _____, 조사책임자: _____</p> <p>2. 조사 제 일 (총예정 _____ 일 중), 연월일: _____</p> <p>3. 조사지역: _____도 _____군 _____읍 _____동 _____면 _____리 _____시 _____구 _____동 _____번지</p> <p>4. 조사진척정도: 계획 _____, 실제 _____</p>	<p>번지 (부락명: _____)</p>
<p>II. 1. 조사지역 개관</p> <p>2. 조사표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 <p>3. 면접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 <p>4. 관찰기록</p> <p>5. 협조사항 (조사본부 및 조사지역의 해당기관)</p> <p>6. 조사단 현황 (면접원들의 현지생활 및 단내 인간관계)</p> <p>7. 기타 특기사항</p>	
<p>III. 지역조사책임자 소감</p> 	

* 모형에서는 일지와 보고서를 각각 1면으로 예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할 때는 상황에 맞게 그 분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면 접 원 보 고 서 >

I. 1. 조사 단 :		, 면 접 원 :	
2. 조사기간 :		에서 까지, 작성연월일 :	
3. 조사지역 :		읍 동 번지 (부락명 :)	
		도 군 번 리	
		시 구 동 번지	
4. 조사실적 :		계획 , 실제	
II. 조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조사지역 및 조사시기			
2. 조사표 (내용·표현·배열·난이도·면접소요시간 등)			
3. 응답자 및 면접원			
4. 현지 작업수행 (작업분량·현지생활여건·단내 인간관계 등)			
5. 기타 특기사항			
III. 조사참여 소감			

부록 II : 조 사 표

국민생활과 대외관계에 대한 의식 조사연구

일 련 번 호				지 역

제 1 부

먼저 귀하가 평소 느끼거나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 몇 가지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1. 귀하는 평소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_____ 7

카드에서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_____ 1) 일은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한다. _____ 2) 일은 대충 한다.
 _____ 3)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므로 일을 한다. _____ 4) 일은 무조건 싫다.
 _____ 9) 무응답

2. 일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많아져도 수입이 늘어난다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8

아니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줄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 _____ 2)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좋다.
 _____ 3) 기 타 _____ 9) 무응답

3. 오늘날의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9

카드에서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_____ 1) 능력·재능 _____ 2) 노 력 _____ 3) 행 운 _____ 4) 학력·자격
 _____ 5) 혈연관계 _____ 6) 출신지 _____ 7) 기타 (무엇 :) _____ 9) 무응답

4. 「일은 남성이 중심이 되고, 가사·육아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_____ 10
 생각에 대해서 귀하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 | | | | |
|-----------------|-----------|-----------|-----------------|------------|
| 매우
찬성
(1) | 찬성
(2) | 반대
(3) | 매우
반대
(4) | 무응답
(9)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5.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귀하는 남자와 여자 중 어느 쪽으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_____ 11

- _____ 1) 남 자 _____ 2) 여 자 _____ 9) 무응답

6. 귀하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십니까? _____ 12

아주 만족 (1)	만족 (2)	불만족 (3)	아 주 불만족 (4)	무응답 (9)	
-----------------	-----------	------------	-------------------	------------	--

7. 오늘날의 사회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카드에서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_____ 13

- | | | | |
|--------------|--------------|--------------|---------------------------|
| _____ 1) 안 정 | _____ 2) 자 유 | _____ 3) 번 영 | _____ 4) 평 등 |
| _____ 5) 혼 란 | _____ 6) 관 리 | _____ 7) 정 체 | _____ 8) 불공평 _____ 9) 무응답 |

8~12. 한국과 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나라들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특별히 어느쪽도 아니십니까? (각각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좋다 (1)	어느쪽도 아 니 다 (2)	싫다 (3)	기타 (4)	무응답 (9)	
8. 미 국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4
9. 소 련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5
10. 중 공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6
11. 일 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7
12. 북 한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8

13. 「일본」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_____ 19 20

아무것이나 상관없으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14. 일본에 관한 뉴스나 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_____ 21

카드에서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
| _____ 1) 신 문 | _____ 2) 텔레비전 | _____ 3) 라디오 | _____ 4) 책·잡지 |
| _____ 5) 영 화 | _____ 6) 다른 사람의 이야기 | _____ 9) 무응답 | |

15. 귀하가 일본에 관하여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_____ 22 23

카드에서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
| _____ 1) 정 치 | _____ 2) 경제·산업 | _____ 3) 과학기술 | _____ 4) 사람들의 생활 |
| _____ 5) 재일교포에 관한 일 | _____ 6) 문화·역사 | _____ 7) 일본어 | |

_____ 8) 관 광 _____ 9) 교육제도 _____ 10) 기 타 _____ 99) 무응답

16. 귀하는 일본 제품을 사 보셨거나 사용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_____ 24 25
 카드에서 2 개 까지 골라 주십시오. _____ 26 27

- _____ 1) 텔레비전, 라디오 _____ 2) 냉장고, 전기밥통 등
 _____ 3) 녹음기, 전자식 탁상계산기 _____ 4) 카메라 _____ 5) 시 계
 _____ 6) 식료품 _____ 7) 옷, 의류 _____ 8) 스포츠 용품 _____ 9) 의약품
 _____ 99) 무응답

17. 귀하는 「일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_____ 28
 카드에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_____ 1) 경제가 발전되어 있다. _____ 2) 정치가 안정되어 있다.
 _____ 3) 언론의 자유가 있다. _____ 4) 기술수준이 높다.
 _____ 5) 과거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 _____ 6)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이 별로 없다.
 _____ 7) 북한에 대해 경제심이 회박하다. _____ 8)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있다.
 _____ 9) 무응답

18. 그러면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_____ 29
 카드에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_____ 1) 근면하다. _____ 2) 단결력이 있다. _____ 3) 유능하다.
 _____ 4) 예의바르다. _____ 5) 신용할 수 없다. _____ 6) 위압적이다.
 _____ 7) 이기적이다. _____ 8) 타산적이다. _____ 9) 무응답

19. 일본이 선진공업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주된 원동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골라 대답해 주십시오. _____ 30 31

- _____ 1) 국민이 근면했기 때문이다. _____ 2) 연구개발이 활발하였다.
 _____ 3) 인건비가 낮았다. _____ 4) 인구가 많았다. _____ 5) 교육수준이 높았다.
 _____ 6) 미국의 원조 덕분이다. _____ 7) 군사비가 적었다.
 _____ 8) 정책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_____ 9) 운이 좋았다.
 _____ 10) 6·25 전쟁 덕분이다. _____ 11) 기 타 _____ 99) 무응답

20. 한국이 일본경제를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_____ 32

- _____ 1) 5년 이내 _____ 2) 10년 이내 _____ 3) 15년 이내 _____ 4) 20년 이내
 _____ 5) 그 이상 _____ 6) 기 타 _____ 9) 무응답

21.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33
 _____ 1) 잘 되어가고 있다. _____ 2)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_____ 3) 기 타 _____ 9) 무응답
22.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34
 그렇지 않으면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금과 별 차
 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_____ 2)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_____ 3)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_____ 4) 기 타 _____
 _____ 9) 무응답
23. 한국과 일본 사이에 사람의 왕래나 문화의 교류를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하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정도로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35
 _____ 1)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하는 것이 좋다. _____ 2) 지금 정도로도 좋다.
 _____ 3) 더 제한해야 한다. _____ 4) 기 타 _____ 9) 무응답
24. 장차 우리나라의 통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36
 _____ 1) 가능하다. (→문 25) _____ 2)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_____ 3) 기 타 _____ 9) 무응답
25. (문 24에서 ‘가능하다’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그렇다면 언제쯤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10년 이내입니까, 20년 이내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 걸릴 것이라고 _____ 37
 생각하십니까?
 _____ 1) 10년 이내 _____ 2) 20년 이내 _____ 3) 그 이상
 _____ 4) 기 타 _____ 8) 비해당 _____ 9) 무응답

제 2 부

마지막으로, 설문문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사항을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26. 성 별 _____ 41
 _____ 1) 남 자 _____ 2) 여 자 _____ 9) 무응답
27. 연세는 얼마입니까? _____ 42
 _____ 1) 20 ~ 24 세 _____ 2) 25 ~ 29 세 _____ 3) 30 ~ 34 세 _____ 4) 35 ~ 39 세
 _____ 5) 40 ~ 44 세 _____ 6) 45 ~ 49 세 _____ 7) 50 ~ 54 세 _____ 8) 55 ~ 59 세
 _____ 9) 60 ~ 64 세 _____ 10) 65세 이상 _____ 99) 무응답

- | 1) 귀 하 | 2) 가 구 주 | |
|--------|----------|--------------------------------------|
| _____ | _____ | 21) 교통관광 안내원 |
| _____ | _____ | 23) 판매감독자, 구매원 |
| _____ | _____ | 24) 보험 및 증권거래인 |
| _____ | _____ | 25) 부동산 거래인 |
| _____ | _____ | 26) 경매인, 감정원 |
| _____ | _____ | 27) 외무사원 |
| _____ | _____ | 28) 점원 및 선전원 |
| _____ | _____ | 29) 행 상 |
| _____ | _____ | 31) 기업체 사원 |
| _____ | _____ | 32) 정부행정 공무원 (중앙관서계장 이하, 지방관서 과장 이하) |
| _____ | _____ | 33) 일반 사회단체 직원 |
| _____ | _____ | 34) 위관급 장교, 하사관 |
| _____ | _____ | 35) 속기사, 타자원, 키편처 |
| _____ | _____ | 36) 계산기 조작원, 전화전신기 조작원 |
| _____ | _____ | 37) 도서 및 문서 정리원 |
| _____ | _____ | 39) 생산 감독 |
| _____ | _____ | 40) 철도기관사, 자동차운전사, 상선선원 |
| _____ | _____ | 41) 비행기 조종사 |
| _____ | _____ | 42) 숙련공, 기능공 |
| _____ | _____ | 43) 반 숙련공 |
| _____ | _____ | 44) 미숙련공, 견습공 |
| _____ | _____ | 45) 노무자, 막노동자 |
| _____ | _____ | 47) 기사, 테크니션 |
| _____ | _____ | 48) 의료보조원, 간호원 |
| _____ | _____ | 49) 수의사, 약사, 한의사 |
| _____ | _____ | 50) 초중고교사, 학원강사 |
| _____ | _____ | 51) 성직자 |
| _____ | _____ | 52) 연예인 |
| _____ | _____ | 53) 체육인 |

- | 1) 귀 하 | 2) 가구주 | |
|--------|--------|-------------------------|
| _____ | _____ | 55) 기업체 최고경영자 |
| _____ | _____ | 56) 사회단체 최고책임자 |
| _____ | _____ | 57) 정부고급공무원 (중앙관서 과장이상) |
| _____ | _____ | 58) 지방관서 국장이상 |
| _____ | _____ | 59) 기업체 간부 |
| _____ | _____ | 60) 사회단체 간부 |
| _____ | _____ | 61) 영관급이상 장교 |
| _____ | _____ | 62) 초중고 교감 또는 교장, 학원원장 |
| _____ | _____ | 64) 의사, 치과의사 |
| _____ | _____ | 65) 법조인, 변호사 |
| _____ | _____ | 66) 교수, 연구원 |
| _____ | _____ | 67) 예술가, 작가 |
| _____ | _____ | 68) 언론인, 방송인 |
| _____ | _____ | 69) 회계사, 세무사 |
| _____ | _____ | 70) 고급엔지니어 |
| _____ | _____ | 98) 비해당 |
| _____ | _____ | 99) 무응답 |

(* 응답자의 현재 직업이 주부, 학생, 군인 (사병), 은퇴자, 실업자라고 한 경우에는 이하 문항 30이내는 가구주의 직업상태를 물어 볼 것)

30-2. 귀하가 (가구주가) 일하는 곳 또는 직장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_____ 49

- | | | |
|------------------|------------------|------------------------------|
| _____ 1) 300명 이상 | _____ 2) 50~299명 | _____ 3) 10~49명 |
| _____ 4) 5~9명 | _____ 5) 2~4명 | _____ 6) 혼자서 일한다. (문항 30-5로) |
| _____ 8) 비해당 | _____ 9) 무응답 | |

30-3. 귀하가 (가구주가) 주인 또는 고용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아래에서 일하십니까? _____ 50

- | | |
|----------------------------------|---------------|
| _____ 1) 주인, 고용주 | _____ 2) 피고용자 |
| _____ 3) 가족종사자 (고용주가 가족의 일원인 경우) | |

30-4. 귀하가 (가구주가) 일하시는 곳 또는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직함으로 귀하를 (가구주를) 부릅니까? _____ 51

- | | | |
|----------------------|------------------|------------------|
| _____ 1) 임원 또는 중역이상급 | _____ 2) 부장, 국장급 | _____ 3) 과장급 |
| _____ 4) 평사원급 | _____ 5) 반장, 조장급 | _____ 6) 평공장 근로자 |

- _____ 8) 비해당 _____ 9) 무응답
- 30-5. 귀하는 (가구주는) 지난 석달 동안 약 몇일간 일하셨습니까? _____ 52
- _____ 1) 45 일 이상 _____ 2) 30 일 이상 _____ 3) 2주일 이상
 _____ 4) 일주일 이상 _____ 5) 일주일 미만 _____ 9) 무응답
- 30-6. 귀하의 (가구의) 현재 직업에서 얻는 한달의 평균수입은 얼마입니까? _____ 53
- _____ 1) 10 만원 미만 _____ 2) 10~20 만원 _____ 3) 20~30 만원
 _____ 4) 30~50 만원 _____ 5) 50~70 만원 _____ 6) 70~100 만원
 _____ 7) 100~150 만원 _____ 8) 150 만원 이상 _____ 9) 무응답
31. 액의 전체 한달의 평균소득은 얼마정도입니까? _____ 54
- _____ 1) 20 만원 미만 _____ 2) 20~30 만원 _____ 3) 30~40 만원
 _____ 4) 40~50 만원 _____ 5) 50~70 만원 _____ 6) 70~100 만원
 _____ 7) 100~150 만원 _____ 8) 150 만원 이상 _____ 9) 무응답
32. 한일간 유대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려 한다면 다음의 어떤 노력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56
- _____ 1)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 _____ 2) 문화교류의 증진
 _____ 3) 청소년 교류의 확대 _____ 4) 경제협력의 강화 _____ 5) 기술교류의 증진
 _____ 6) 긴밀히 할 필요없다. _____ 9) 무응답
33. 한일간 경제관계를 증대시킨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57
- _____ 1) 경쟁의 치열 _____ 2) 상호이익의 증대 _____ 3) 한국경제의 이익증대
 _____ 4) 일본경제의 이익증대 _____ 5) 매일본 경제의존의 심화 _____ 9) 무응답
34. 한국경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무엇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58
- _____ 1) 경제안정 (물가안정도 포함) _____ 2) 성장의 촉진 _____ 3) 외채의 감소
 _____ 4) 복지의 확대 _____ 5) 고용증대 _____ 9) 무응답
35. 과거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국민의 생활이 나아졌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사람
 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59 _____ 60
- 하나만 골라 ○표를 해주십시오.
- _____ 1)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_____ 2) 교육을 받지 못해서
 _____ 3)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_____ 4) 살고있는 고장이 발전되지 않아서
 _____ 5) 경제정책이 잘못되어서 _____ 6) 부정부패 때문에 _____ 7) 운이 나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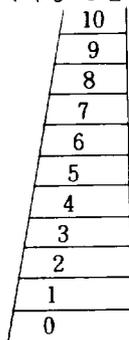
- _____ 8) 자신이 게을러서 _____ 9) 기 타 _____ 99) 무응답
36. 같은 수입이라면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_____ 61
- _____ 1) 면 이하의 농촌에서 _____ 2) 읍이나 중소도시에서
 _____ 3) 대도시에서 _____ 4) 서울에서 _____ 9) 무응답
- 37-1.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여러 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귀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 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_____ 62 _____ 63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계급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 _____ 1) 나눌 수 없다.
 _____ 2) 나눌 수 있다. _____
- _____ 99) 무응답

- 37-2. 귀하는 어떤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64 _____ 65

38.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잘 사는 사람부터 가장 못사는 사람까지 7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카드에서 나타내는 7개층 중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66
 그 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란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_____ 1) 제일 잘 사는 층 _____ 2) 꽤 잘 사는 층 _____ 3) 그런대로 잘 사는 층
 _____ 4) 중간정도 사는 층 _____ 5) 중간보다 약간 못사는 층
 _____ 6) 중간보다 훨씬 못사는 층 _____ 7) 제일 못사는 층 _____ 9) 모르겠다, 무응답

39. 여기서는 귀하가 살아가는 일반적 형편에 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칸이 있는 사닥다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맨꼭대기를 가장 좋은 _____ 67 _____ 68
 상태로 10점이라 하고, 맨 아래를 가장 나쁜 상태로 0점이라 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



(가장 나쁜 상태)

지금 사시는 형편은 사닥다리의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점

아래에는 여러 쟁점에 대하여 서로 반대되는 10 개의 갑과 을의 주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쟁점에 있어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십시오.

갑	갑의 생각과 같다	갑의 생각에 가깝다	을의 생각에 가깝다	을의 생각과 같다	을	
	1	2	3	4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업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	40.	공업위주의 정책과 농업위주의 정책			69	그동안 경제성장은 농업에 부담을 주었으므로 앞으로는 농업에 보다 치중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가 희생되더라도 공해산업은 금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약점을 갖고 있더라도 사회의 안정과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장래를 위해서는 당장에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한다.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만족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 사회의 잘못된 점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급격하게 고쳐나가야 한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공해산업이라도 허용하여야 한다.	41.	공 해 산 업			70	
대기업은 경제적 효율, 고용, 임금, 기술, 국제경쟁력 등에서 잇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육성되어야 한다.	42.	대기업과 중소기업			71	
장래를 위해서는 당장에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한다.	43.	장래에의 대비			72	
사람에게는 정신적 만족보다 물질적인 부가 더 중요하다.	44.	정신적 만족과 물질적 부			73	
사회의 잘못된 점은 점차로 차근차근 고쳐나가야 한다.	45.	사회의 개혁			7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갑	갑의 생각과 같다	갑의 생각에 가깝다	을의 생각에 가깝다	을의 생각과 같다	을
	1	2	3	4	
46. 전통은 우리의 고유한 것이므로 발전에 좀 방해가 되더라도 잘 보존해야 한다.	전통의 보존				75
	1	2	3	4	전통과 관습의 대부분은 발전에 방해가 되므로 되도록 빨리 버려야 한다.
47. 사회가 잘되기 위한 것이라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희생되어도 좋다.	개인과 사회				76
	1	2	3	4	개인을 희생해가면서 사회를 잘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8.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잘살고 못사는 것이므로 빈부의 격차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빈부의 격차				77
	1	2	3	4	능력과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는 것은 부당하다.
49. 경제성장을 다소 늦추고 생활 수준 향상을 지연시키더라도 국민의 정치참여(자유선거)와 인권을 신장시키는 민주화가 바람직하다.	경제성장과 민주화				78
	1	2	3	4	국민의 정치참여와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를 늦춰서는 안 된다.